

재개발지역 마을흔적 남긴다

전주시, 전통한옥·우물터·정자·보호수목 등 원형 보존·디지털 자료로 전시·보관

앞으로 전주지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정자나 우물터 등 마을의 상징물을 반드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전주시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져 가는 도시와 주민들의 흔적을 보관하기 위해 '재개발지역 마을흔적 남기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한옥이나 우물터, 정자, 보호수목 등 정비구역 내 특징적인 건축물이나 기념물, 상징물을 원형 보존하거나 이전, 또는 모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모습이나 물품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전시·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신청 시 보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신동 감나무골과 인후동 종광대2지구, 덕동동 하가지구 등의 경우 조합과 협의해 마을흔적 남기기 용역을 추진기로 했다.

마을흔적 남기기 대상은 지역성을 지닐 정도의 발생연수가 지나고 주민의 생활문화에 속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며 지역적인 추억이 될 수 있는 장소다. 전통한옥과 종교시설, 공원, 조각, 기념비, 정자목, 우물터, 보호수목 등이 포함된다.

마을흔적 보전 방법은 사진·동영상 촬영, 원형 이전, 인터뷰 발굴·구성 등으로, 정비계획 제안 시 보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보전된 자료들은 주민공동시설에 전시하거나 전주시민기록관에 이관기로 했다.

향후 시는 건축·조경, 디지털역사, 역사복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가동해 마을흔적이 원활하게 남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마을 흔적 남기는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는 우리 시민들 삶의 흔적을 추억하는 유산으로 보전하는 게 취지"라며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지역은 의무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해 전주시 과거 모습을 제대로 담아 후세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여름방학 맞은 청소년 위한 프로그램 다채

전주시 야호학교, 바리스타 체험·영상 콘텐츠 제작·미안마 문화 체험 등 실시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바리스타 체험, 영상 콘텐츠 제작, 미안마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나를 찾는 아카데미' 몰입집중 프로젝트 ▲휴~후 프로젝트 ▲예술 비상 프로젝트 ▲디콘(디지털콘텐츠)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를 찾는 아카데미' 몰입집중 프로젝트는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직업체험 등 관심 분야 및 주제를 2~3일 동안 집중해 경험해보는 프로젝트로, 청년 카페 창업가와 학교 교사, 미안마 글로벌 멘토 등과 연계해 지난달 26일부터 추진됐다.

'나를 찾는 아카데미' 청소년들은

카페 창업에 대한 특강을 듣고 바리스타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을 참고해 패러디 창작 영상을 제작하는 경험도 했다. 또 미안마 문화와 언어, 관광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전통의상을 입어보거나 전래 놀이를 해보는 미안마 문화 체험도 진행했다.

휴~후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4일부터 3일간 '나도 크리에이티브!'와 '쿨 때리는 친구들' 등 2개 프로그램으로 실시됐다.

'나도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에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관련 강의를 듣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해보며 영상을 촬영하는 활동으로 이뤄졌다. '쿨 때리는 친구들'을 통해서 축구 기본기를 배우는 등 신체 단련 활동에도 참여했다.

예술 비상 프로젝트는 팔복예술공장과 협업해 지난달 20일부터 총 10 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청소년들은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인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 배우고 직접 시연해보는 프로젝트 활동을 벌였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으로 추진된 디콘 프로젝트에서는 코딩융합기술 교육과 3D 프린팅 작품출력, VR 콘텐츠 작업, 라이브 커머스 교육 등도 펼쳐졌다.

장경수 교장은 "청소년들이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래들과 맘껏 하고 싶은 것을 체험해보면서 한 발짝 성장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라이브커머스 판매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10일까지 프리마켓 셀러와 온두레공동체, 사회경제적조직 등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판매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공동체와 프리마켓 등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1기 교육과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기 교육으로 나뉘어 열리며, 1기당 총 7차시로 구성된다.

1~2차시에서는 네이버스토어 등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채널 개설에서부터 각 채널 플랫폼 활용방법, 혼자서

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세팅법 등 방송 송출을 위한 준비 방법 등이 교육된다. 3~5차시는 카메라 앞에서 하는 자신의 상태 진단, 쇼호스트로서의 목소리 및 태도, 언어기법, 상품판매 스토리텔링 등이 주제다. 마지막 6~7차시에는 참여자들이 개설한 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경험을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rhddud0713@korea.kr)로 발송한 뒤 전화(063-281-2827)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난 라이브커머스 사업 추진 이후 교육 개설 요청이 이어져왔던 만큼 프리마켓 셀러 및 공동체들의 라이브커머스 시장 진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명숙 전주시 마을공동체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돼있는 프리마켓 참여자, 사회조직 등에 이번 라이브커머스 교육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지 않고 상생하며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제1호 착한농부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

전주시, '착한농부 마일리지 제도' 시범 운영 결과 선정 인증서 전달

중화산2동 주민센터(동장 오재수) 옥상 텃밭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이웃들에게 기부한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대표 전덕일)가 전주시 '착한농부' 1호로 선정됐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지난 5월부터 지역 도시농업공동체와 도시텃밭 회원을 대상으로 '착한농부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를 제1호 착한농부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착한농부 마일리지 제도는 도시 텃밭이나 주말농장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전주시 복지사업인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는 시민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1만 점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착한농부로 인증해주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로 선정된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는 그간 10여 명의 회원들이 중화산2동 주민센터 옥상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소포장해 주 1회 나눔을 실천했다. 이들은 엽채류 295kg과 과채류 505kg 등을 기부해 총 55만150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이 공동체에 인증서를 전달하면서 인증 혜택으로 유기질 비료 5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착한농부 제2호와 제3호로 각각 (사)전주시도시농업연



중화산2동 주민센터 옥상 텃밭에서 농산물을 재배해 이웃들에게 기부한 '꽃두렁마을' 도시농업공동체가 전주시 '착한농부' 1호로 선정됐다.

구회'와 '물양말 공동체'를 선정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착한농부 인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단체가 아닌 개인 회원이 착한농부로 선정되면 내년도 색장동 도시텃밭 무료이용권과 물조리개와 꽃삽 등으로 구성된 농작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착한농부 인증에 대한 혜택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덕일 대표는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농부 마일리지 제도'에 많은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재수 중화산2동장은 "시민들이 도시농업공동체 '꽃두렁마을' 활동을 통해 도시농업도 체험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위해 개인 위생수칙 준수해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최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지난 6일 당부했다.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인 음식물 섭취 등으로 전파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설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복통,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병원성 대장균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음식물 익혀 먹기

▲채소, 과일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설사 증상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칼·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6대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요즘같이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